

2019 프로야구 개막 ... 챔피언스필드 구름관중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2019 프로야구 개막 2차전이 펼쳐졌다. 개막 첫날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5000명이 입장하면서 매진을 기록했고, 24일에는 1만7596명이 경기장을 찾아 돌아온 야구의 계절을 즐겼다. >관련기사 2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이번엔 성사 되나

광주시, 3차 공모서 민간사업자에 644억 수익성 개선 효과
상가시설 건폐율 30% → 80% ... 사회환원금 50억으로 낮춰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과거 공모때보다 644억원가량 더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3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수익을 주고 대기업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대신, 특급호텔 의무 건립과 휴양편익시설 면적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도 강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주)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위해 4개월간 협상

을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3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3차 공모안에서는 지난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됐던 관광숙박시설 외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을 허용하되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위탁·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특급호텔(5성급) 15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유원지 부지(41만7531㎡)의 50% 이상은 공공편익·휴양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상가시설은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존과 같이 2만4170㎡로 면적을 제한했다. 제주 여래관광단지 인허가 무효 사례를 감안해 광주시는 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목적을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모에선 상가시설 부지의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594억원 개선하는 효과를 봤다. 과거 2차 공모 당시엔 상가의 1층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2층 900만원, 3층 6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3차 공모에선 건폐율이 커지면서 상가시설을 단층에 배치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단층상가 분양을 통해 564억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또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부분 환원 금액도 2차 공모 당시 100억원(50점 만점)에서 3차는 50억원(50점 만점)으로 줄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50억원 줄였다.

상가를 1층에 추가 건립할 수 있게 하고, 환원 금액도 축소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지난 2차 공모에 비해 644억원의 수익성 개선효과를 준 셈이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위해 주관사 지분율도 과거 30%에서 25%로 낮췄다. 견실한 기업이 참여해 관광단지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 환원 효과를 낸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4월 3일 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를 4월 5일~9일 제출받아 4월 19일 회신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는 6월 21일 접수해 시민평가단 및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과 유사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과확관이 들어서고, 코레일에서 철도역을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투자가 조화를 이뤄 추진되고 있다"면서 "어등산도 탄탄한 기업이 참여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북,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 경색국면 번지지는 않을 듯

북측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북미 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남측 인원의 연락사무소 체류 편의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유화제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 22일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을 통보한 뒤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약 15명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질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북측의 철수로 4·27 판문점선언 합의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으며,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북측은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

수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담당 기관 등을 통해 남측 인원의 체류 편의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남측 인원을 추방한다거나 사무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철수 통보도 문서 등으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은 협의를 통해 25일 남측 인원의 출경도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출경할 인원은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해 평소와 비슷한 40~50명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측이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직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에 등장한 추가제재는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단행하려는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구속영장 심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연다.

이날 심사에서는 영장 범죄 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관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내린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雪花秀

고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TIMETREATMENT
INVIGORATING CREAM
진설크림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